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간의 관계

문 명 자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적·학문적으로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문제 또한 더욱 증가되고 있다. 노인의 건강한 삶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고령화될수록 역할 상실, 신체기능감퇴, 일상생활활동의 제약,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요구되며,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Garrigan & Murphy, 1995).

최근 여성학과 사회복지영역 등 여러 분야에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적 변화에 따른 독립성 상실이나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노인인구에 있어서는 자신감 회복과 무력감을 벗어나 잠재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파워먼트는 개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강하게 보는 자기 신뢰감의 증진까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개인 내부의 긍정적 측면의 강화를 통해 자기의 내적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이다(Park, 1998).

우리나라 노인은 수단적 일상생활기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에 제한을 받는 노인이 24.9%로 나타

났으며(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0), 이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185만 명이 일상생활기능의 제약자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노인의 21%가 IADL이 제한되어 있고, 전체 노인의 16%가 자택에서 재가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Leukonett, 1996).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 중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은 54.1%에 불과하고, 특히 독거노인은 26.2%, 노부부 가족의 경우 49.4%만이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들 건강관리와 부양보조가 필요한 노인 중 일상생활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중증 질환 노인이나 부양자가 전혀 없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은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재가 서비스를 요하는 노인이 280만 명이 넘을 추산이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0).

일상생활기능의 측정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건강상태를 병리현상에 근거하기보다는 기능수준에 기초를 둔 기능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Cho, 1988), 재가노인의 행동을 사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인지기능 사정 및 사회적 역할의 사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가 따르게 되는데 특히, 신체기능의 감소는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었을 때 적응력 감소를 야기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독립성 상실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Murrel, Meeks & Walker, 1991).

또한, 노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사회적지지 및 역할을

주요어 : 노인,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1)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mjmoon@mcu.ac.kr)

투고일: 200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5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고독감과 소외감은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i & Paek, 2002).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정신건강 요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질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기반이 된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서의 자아존중감은 일상의 대화나 사고에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이며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i, 1995).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임파워먼트를 적용한 프로그램은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들에게 적용되어 자기효능감과 대처행동 향상, 부담감 감소의 효과(Eo, 2005)가 있었으며, 당뇨병(Choi, 1999), 류마티스 관절염(Park, 2001)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자기관호능력을 증진시켜 건강증진 행위를 유도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재가노인의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며(Moon, 2004), 일상생활기능 정도는 자아존중감과 건강행위와 함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보고 되었다(Kim, 1998; Choi & Paek, 2002). 이 중 자아존중감은 건강행위의 영향요인이며(Moon, 2004; Park, 1995; Lee & Han, 1996; Shon, 2001; Duffy, 1988), 또한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Moon, 2004).

그러나, 노인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기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재가노인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과 재가노인의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노인의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는 간호중재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

-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정도를 파악한다.
-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 재가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 일상생활기능

일상생활기능은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Mahoney & Bathel, 1965),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

(BADL, Based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수단적 일상생활기능(IADL)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단적 일상생활기능(IADL)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재가 노인이 독립적인 일상생활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Lawton과 Brody(1969)의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측정도구를 Song(1991)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자아존중감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며(Taft, 1985), 본 연구에서는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Jeon(1974)이 변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임파워먼트

개인 자신의 능력(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 포함)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강하게 보는 자기 신뢰감의 증진까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개인 내부의 긍정적 측면 강화를 통해 자기의 내적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이다(Park, 1998). 본 연구에서는 Spreizer(1995)가 개발하고 Jung(1998)이 변안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

M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거동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으로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자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임의표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최종 대상자는 274명이었다.

연구도구

• 수단적 일상생활기능(IADL)

Lawton과 Brody(1969)의 수단적 자립척도를 Song(1991)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기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도구를 Jeon(1974)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 임파워먼트

Spreitzer(1995)가 개발하고 Jung(1998)가 변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M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재가노인으로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방문한 노인 중 본 연구에 협조하는 노인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사전동의를 얻은 후, 훈련받은 면접자가 설문지를 직접 읽어주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90부를 조사하였으나 이 중 자료가 불충분한 16부를 제외한 274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재가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및 임파워먼트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재가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3.68세였고, 75-79세가 2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위는 70-74세로 24.1%였다. 성별은

여자가 75.9%로 약 2/3 정도였다. 교육정도는 국졸 또는 서당이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학이 39.1%로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가 36.5%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노인이 27.7%, 천주교 23%, 불교 33% 순이었다.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이 66.8%로 과반수이상 이었다. 동거유형은 혼자 사는 노인이 35%로 가장 많았다. 입원경험은 6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노인이 89.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Age (year)	60-64	34	12.4
	65-69	44	16.1
	70-74	66	24.1
	75-79	70	25.5
	80-84	45	16.4
	above 85	15	5.5
Sex	Male	66	24.1
	Female	208	75.9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107	39.1
	Elementary school or a Village school	122	44.5
	above Middle school	45	16.5
Religion	None	76	27.7
	Christianity	100	36.5
	Catholicism	63	23.0
	Buddhism	33	12.0
	No answer	2	.7
Spouse	Yes	89	32.5
	No	185	67.5
Type of living with	Alone	96	35.0
	Live with spouse	60	21.9
	Live with married son or daughter	94	34.3
	Live with single son or daughter	24	8.8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Yes	171	62.4
	No	103	37.6
Job	Yes	30	10.9
	No	244	89.1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정도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정도를 측정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수준은 평균점수가 최소 1.27점에서 최고 4점의 범위로 평균 3.74(±.37)이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난 항목은 '자신의 약 챙겨먹기'(3.92±.29)이었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층계 오르기'(3.32±.69)이었다.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평균점수가 최소 1.7점에서 최고 4.8점의 범위로 평균 3.22(±.51)이었으며 가장 높

은 항목으로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3.43±.94)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가장 낮은 항목은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2.66±.76)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먼트의 정도는 평균점수가 최소 1.2점에서 최고 5점으로 평균 3.36(±.65)이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나는 나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수행한다'(3.69±.81)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나는 나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통제할 수 있다'(3.06±1.02) 이었다.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기능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86, p=.000$). 또한, 일상생활기능과 임파워먼트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416, p=.000$).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568, p=.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IADL, self-esteem, empowerment (N=274)

Variable	Mean	SD	range
IADL	3.74	.37	1.27-4.00
Self-esteem	3.22	.51	1.70-4.80
empowerment	3.36	.65	1.20-5.00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IADL, self-esteem, empowerment (N=274)

Variable	r(p)	
	IADL	Self-esteem
Self-esteem	.286(.000)	
Empowerment	.416(.000)	.568(.000)

<Table 4> IADL, self-esteem, empower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7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IADL			Self-esteem			Empowermen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60-64yrs	3.89(.15)	4.36	.001	3.59(.58)	6.16	.000	3.77(.71)	5.97	.000
	65-69yrs	3.81(.43)			3.27(.58)			3.35(.61)		
	70-74yrs	3.77(.35)			3.22(.48)			3.47(.67)		
	75-79yrs	3.76(.33)			3.17(.46)			3.29(.53)		
	80-84yrs	3.56(.46)			3.04(.35)			3.08(.54)		
	above 85yrs	3.59(.33)			2.96(.42)			3.36(.86)		
Sex	Male	3.82(.35)	2.03	.43	3.38(.54)	3.02	.003	3.68(.64)	4.87	.000
	Female	3.72(.38)			3.16(.49)			3.25(.62)		
Educational level	Non-educated	3.62(.45)	11.54	.000	3.07(.52)	10.36	.000	3.08(.69)	23.07	.000
	Elementary school or a village school	3.81(.31)			3.26(.42)			3.44(.50)		
	above Middle school	3.37(.22)			3.45(.58)			3.78(.66)		
Religion	None	3.69(.48)	.98	.42	3.25(.57)	.67	.62	3.36(.70)	1.08	.37
	Christianity	3.77(.33)			3.25(.49)			3.39(.59)		
	Catholicism	3.78(.31)			3.14(.50)			3.25(.62)		
	Buddhism	3.70(.31)			3.17(.46)			3.48(.73)		
	No answer	3.53(.38)			3.05(.21)			2.85(1.20)		
Spouse	Yes	3.88(.19)	4.23	.000	3.44(.51)	5.22	.000	3.71(.55)	7.00	.000
	No	3.68(.42)			3.10(.47)			3.19(.63)		
Type of living with	Alone	3.71(.35)	4.17	.007	3.09(.47)	5.75	.001	3.16(.62)	9.94	.000
	Live with spouse	3.87(.15)			3.40(.47)			3.64(.47)		
	Live with married son or daughter	3.68(.48)			3.19(.50)			3.29(.66)		
	Live with single son or daughter	3.81(.29)			3.35(.61)			3.68(.78)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Yes	3.75(.36)	.29	.774	3.20(.51)	-.55	.59	3.35(.67)	-.22	.82
	No	3.73(.40)			3.24(.50)			3.37(.62)		
Job	Yes	3.92(.20)	2.76	.006	3.69(.65)	4.35	.000	4.03(.63)	6.39	.000
	No	3.72(.38)			3.16(.46)			3.27(.61)		

*p<.05,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은 대상자의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낮고, 교육정도가 높고 배우자가 생존해있는 대상자에서 일상생활 기능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는 여성에 비해 남성 대상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직업이 없는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거유형에 따른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는 부부만 사는 경우에서 높게,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높게 나타난 반면에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와 혼자 사는 경우에는 낮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60세 이상 재가노인 274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기능 정도는 3.74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1999; Kim & Jung, 2002)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임파워먼트의 평균점수는 3.36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평균점수가 3.22점으로 나타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3.30(Song, 2002), 3.41(Choi & Paek, 2002),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3.17(Cho, 1999)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일상생활기능(IADL)과 자아존중감 및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보면, IADL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r=.286, p=.000$)가 있어서,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ADL과 임파워먼트($r=.416, p=.000$),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r=.568, p=.000$)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기능 정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기능 정도와 삶의 만족 간에 연관이 높다고 보고 된 연구(Roos & Havens, 1991)와 같은 결과이다.

수단적 일상생활기능(IADL)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IADL 상태는 노인의 신체적 질병이나 감각능력 등 노인이 가진 개인적 조건과 노인이 위치한 환경,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상태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Moon, 2004). 노인의 일상생활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근력강화 운동과 근관절 운동 등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으로(Kim, 1994; Shin, 1985) 체력요인과 관련되며, 일상생활기능정도와 관련되는 노인의 독립정도는 삶의 만족과 연관이 높고 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음이 밝혀졌다(Roos & Havens, 1991).

또한, 노인은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상실 즉, 건강, 감각, 인지, 가족과 친구, 가정, 소득과 직업 등의 상실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 Pensiero와 Adams(1987)는 좋지 않은 건강과 만성질병은 제한된 활동이나 신체손상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요구하여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상생활기능 정도는 자아존중감과 함께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노인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일상생활기능의 훈련과 자아존중감의 증진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노인 간호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의 유무, 직업 등에 따라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는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높게, 여성보다 남성에서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가 높게, 배우자가 있고 부부만사는 경우에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직업을 가진 노인에서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낮은 고령, 낮은 교육수준, 배우자와 직업이 없는 노인집단에 있어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통해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Kim(1998)은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능력,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전략적인 간호중재와 간호사의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Lee(2000)는 노인을 깊이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회상요법이 입원노인환자의 무력감 감소,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증가에 적절한 간호중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효과가 환자의 부모(Eo, 2005), 제2형 당뇨병환자(Choi, 1999),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Park, 2001) 보고되었으며, 따라서, 노인 대상자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도와주고 타인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변화시킴으로써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기능 및 자아존중감 및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M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재가노인을 설문조사하여 총 274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와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연령이 73.68세였고, 성별은 남자가 66명(24.1%), 여자가208명(75.9%)이었다. 교육정도는 국졸 또는 서당이 44.5%, 무학이39.1%로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가 36.5%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이 66.8%로 과반수이상이었다. 동거유형은 혼자사는 노인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한 아들과 함께사는 경우가 24.8%, 부부만 사는 경우가 21.9%였다. 입원경험은 6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노인이 89.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수준은 평균 3.74점(1.27점-4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평균 3.22점(1.7점-4.8점)이었다. 또한 임파워먼트의 정도는 평균3.36점(1.2점-5점)이었다.
- 일상생활기능과 자아존중감($r=.286, p=.000$), 일상생활기능과 임파워먼트($r=.416, p=.000$),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r=.568, p=.000$)는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별 일상생활기능,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은 대상자의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직업 유무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상생활기능과 자아존중감은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노인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일상생활기능의 훈련과 자아존중감 증진전략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높은 연령군의 혼자사는 노인에 있어 일상생활기능과 자아존중감을 높여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간호중재 전략이 요구된다.

References

Cho, K. S., Lee, K. Y., & Kim, S. Y. (1999). A Study on the Powerlessness,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of

Elderly Home Residents. *J Korean Acad Adults Nurs*, 11(3), 436-448.

Cho, Y. H. (1988). Physical and social Disability among the Aging. *J Korean Acad Nurs*, 18(1), 70-79.

Choi, E. O. (1999) *Effects of empowerm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type 2 diabetics on the empowerment self-care behavior and the glycemic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Choi, Y. H.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and Hopelessness in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J Korean Acad Nurs*, 25(3), 549-561.

Choi, Y. H., & Paek, K. S. (2002). The Correlational Study on Health-promoting Behavior,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J Korean Acad Community Nurs*, 13(1), 39-48.

Duffy, M. E. (1988).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on in Midlife Woman. *Nurs Res*, 37(6), 358-362.

EO, Y. S. (2005). Effects of an Empowerment program on the burden of mothers having a child with cerebral palsy, *J Korean Acad Nurs*, 35(1), 154-164

Garrigan, D., & Murphy, E. (1995). Social support among elderly in two community programs. *J Geronto Nurs*, 21(2), 31-38.

Jeon, B. J.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e ability. *The Yonsei Journal*, 11, 107-129.

Jung, H. J. (199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H. J. (1994). *An Effect of Muscle Strength Training Program on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in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J. H. (1999). *A stud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ood states, ADL and nursing need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im, J. H., & Jung, Y. M. (2002). A Study on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Living alone Elderly. *J Korean Geronto Nurs*, 4(1), 16-26.

Kim, J. S. (1998). A Study on Self-Esteem, IADL,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28(1), 148-158.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0). from www.kihasa.re.kr

Lawton, M. P., & Brody, E. (1969). Assessment of Older People : Self Maintaining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Gerontologist*, 9, 179-183.

Lee, J. K., & Han, A. K. (1996).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iety Adult Nurs*, 8(1), 55-68.

Lee, S. M. (2000), *The Effect of Retrospect Therapy on*

- Powerles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ukonett, A. G. (1996). *Gerontological Nursing*, St. Louise: Mosby.
- Mahoney, F. I., & Bathel, D. W. (1965). Function evaluation: the Bathel Indax. *Md State Med J*, 14, 61-65
- Moon, M. J. (2004). *Analysis on the Structur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for Elderly Home Resi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Murrel, S. A., Meeks, S., & Walker, J. (1991) Protective Function of Health and Self-Esteem Against Depression in Older Adults Facing Illness or Bereavement. *Psychol Aging*, 6(3), 352-360.
- Park, I. H. (2001) *Effects of empowerm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patients having rheumatoid arthritis on empowerment, health status and self-care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Park, I. S. (1995). *A Study of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Park, W. W. (1998). *Manual of Applied Empowerment*. Seoul : Sigma Consulting Group.
- Pensiero, M., & Adams, M. (1987). Stress and Self-Esteem. *J Geronto Nurs*, 13(10), 11-17.
- Rog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os, N. P., & Havens, B. (1991).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Twelve-year Study of Manitoba Elderly, *Am J Public Health*, 81(1), 63-68.
- Shin, J. S. (1985). *The Effects of the Range on Motion Exercise on selfcare Activities and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hon, Y. H. (2001). *A Predictive Model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Korean Patients on Hemodi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ong, M. S. (1991). *Construction of a Functional Status Prediction Model for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Song, Y. S.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Self 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Spreizer, G. M.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Acad Manage J*, 38(5), 1442-1465.
- Taft, L. B.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 A Nursing perspective. *ANS Adv Nurs Sci*, 8(1), 77-84.

Correlational Study of IADL, Self-Esteem, Empowerment of Elderly People Living at Home

Moon, Myeong-ja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ADL, self-esteem and empowerment of elderly home resident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 1st to September 30, 2004. The participants were 274 elderly people who lived at home.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s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 Mean scores for IADL, self-esteem and empowerment were 3.74, 3.22, 3.36 respectively. IADL and self-esteem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to empowerment. **Conclusion:** This results indicate that the elderly people need more self-esteem and empowerment. Therefor it is important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enhance empowerment in elderly people.

Key words : Elderly, IADL, Self-esteem, Empowerme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oon, Myeong-ja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894-1, Sukhun-dong, Mok-po, JeollaNamdo 530-742, Korea
Tel: +82-61-280-5126 Fax: +82-61-280-5109 E-mail: mjmoon@mcu.ac.kr